

## 창조질서

오늘의 수도자를 향한 하나의 쟁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지구온난화분과  
로마, 이태리 2002년 3월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거나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문의하십시오

[jpicclimatechange@yahoo.co.uk](mailto:jpicclimatechange@yahoo.co.uk)

<http://www.jim.mcintosh.org/globalwarming>

## 기후변화가 삶에 주는 영향

**서언 :** 이 책자의 목적은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의 쟁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 책자는 각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방편들을 제공할 것이며, 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유용할 수 있도록 성서적, 신학적 자료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책자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속적 교육과 초기양성을 위한 자료들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 책자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총체적인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만, 어떤 경우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한 단계 문제를 다루게 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책자는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시도할 것입니다.**

-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란 무엇인가?
-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 사회정의의 책임성은 무엇인가?
  - 원인들의 내적 연고성은 무엇인가?
- 수도자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관련되는가?
- 생태에 관하여 우리 신앙의 전통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 바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란 무엇인가?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활동들이 주로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들을 증가시킴으로서 대기의 화학적 구성을 변동시키기 때문이고, 이들 가스들은 열기를 차단하는 성질이 있다.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지구의 날씨와 기후를 조절하면서 지구표면을 달구고 다시 지구는 이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들(수증기, 이산화탄소, 고 밀도의 가스들)은 방출되는 이 에너지의 일부를 차단하면서 온실의 유리 막처럼 열을 보유한다. 이 자연적인 온실효과 없다면 온도는 현재보다 훨씬 낮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은 삶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온실가스에 감사하며, 지구의 평균 온도는 훨씬 쾌적한 화씨 60도/섭씨 15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기권에 온실가스들이 집중적으로 증가한다면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거의 30 퍼센트가, 메탄은 2배 이상이, 산화질소는 약 15 퍼센트 증가하였다. 이들 증가는 지구대기의 열 방출 차단 기능을 강화시켜왔다. 왜 온실 가스들의 농도가 증가하는가?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화석연료의 연소나 여타 인간의 활동이 이산화탄소나 다른 온실가스들의 농도를 증가시킨 주요한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기후변화는 21세기의 세계가 직면한 가장 위급한 도전의 하나다. 새롭고 보다 강력한 증거가 최근의 연구로부터 떠오르고 있는데, 지난 50여 년 간 가장 뜨겁게 관찰된 것이 인간의 활동이다. 기후의 변화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미래의 지구온난화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지구의 온도증가에 직면해 있으며 또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1997년 12월과 그리고 보다 가까이는 2000년 12월에, 기후변화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이천명이 넘는 과학자들의 국제모임은 현재의 기후변화가 대부분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여기서 발견된 사실과 증거들은 작금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진, 홍수, 허리케인, 사이클론, 한발 등과 같은, 보다 심각하고 발생이 빈번한 자연재앙이 증가할 것이다. 1960년 이래로 큰 기상재앙이 4배 증가하였다.

지구의 온도는 다음 세기에 섭씨 5도(화씨 10도) 가량 높아질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증가폭은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 북극의 얼음 두께는 이미 심각하게 얇아져 있다.

산림개간은 탄소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가속시키는 인간이 원인이 되는 방출량의 20 퍼센트에 상당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역량을 저하시킨다.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세계의 자동차 수는 4천만에서 6억 8천만으로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인간이 야기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 방출 양의 주 요인이다.

지난 50년 간 우리는 복구 불가능한 세계 에너지 자원의 최소한 절반을 소비했으며 세계의 산림 50 퍼센트를 파괴해 왔다.

## ■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라고 알려진 어떤 가스들, 특히 이산화탄소와 염화불탄소(프레온가스-역자 주)가 인간의 삶의 양식과 산업활동으로 인해 대기에 누적되면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인데, 이는 거의 산림개간이나 산불에 의한 것들뿐만 아니라 석탄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산화질소는 자동차나 산업 배출물질인 반면 메탄가스는 산업과 농업, 둘의 활동이 원인이다. 염화불탄소는 오존층에 심각한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어가고 있는데,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염화불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은 대기에 축적되거나 태양으로부터의 열을 차단하는 오염 가스들이다. 바다와 산림은 거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바다와 산의 싱크대로서의 역할은 현재 포화 상태다. 말하자면, 매년 대기 중에 남아있는 총 온실가스의 누적 양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100년 간의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최소한 70 퍼센트의 에너지가 선진국에서 소비되었고 그 에너지의 78 퍼센트는 화석연료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지역은 착취를 당하고 다른 지역은 막대한 이익을 끌어 가는 불균형을 낳았다. 한편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들(태양, 바람, 생물에너지, 소형 혹은 초소형의 수력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의 수준은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할당하는 자금과 투자에 비해서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림개간은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탄소 배출 증가량의 20 퍼센트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국지기후와 수문학적 순환을 변화시킴으로서 토지의 성질에 영향을 준다.

IPCC(기후변화 국제기구)에 의하면, 심각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현재 수준을 가능한 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실천-전 세계가 약속한 온실가스 방출의 최소 50 퍼센트 절감-이 요구된다.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비참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 결과들

- 해수면의 상승이 사람들에게 참담한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저지대의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의 연안지역과 삼각주, 그리고 가뭄과 홍수로 타격을 입는 나라들의 가난한 국민들이 취약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20년까지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가뭄과 홍수의 위험에 처할 것이다. 가난한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상정하기 어려운 곤란을 겪을 것인데 이는 한 부분 그들 나라의 지형적 이유에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변화에 대응하거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지구상의 인류와 생물 종들이 이미 기후변화로 오는 고난을 겪고 있다.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그와 같은 재난이 이미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상고온 현상이라든가, 곤충에 의한 열대성 질병이 적도 남, 북 지역 모두에서 퍼지고 증가한다든가, 안전하지 못한 음식물이 그 예이다.

- 온실가스 방출을 과감하게 줄일 어떤 실천이 없다면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비가 50년 내로 미화 3억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만일 우리의 정치지도자와 정책입안자들이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면, 세계경제는 심각한 후퇴를 겪게 될 것이다. 과거 10년 간 자연 재앙은 6억 8백만 달러의 경비를 세계에 부담시켰다.

- 유엔환경기구(UNEP)의 대변인은 2001년 11월 모로코의 마라케즈에서 있었던 7차 기후변화 국제협약회의(COP-7)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보리, 쌀, 옥수수과 같은 세계의 주요곡식의 소출이 다

음 100년 간 30 퍼센트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는 농부들이 더 높고 추운 산악지대로까지 떠밀려가서 숲을 헤치고 산불을 낸다든가 그리고 물 공급의 질과 양을 위협할 것을 두려워했다. 이 회의에서 발견된 결과들은 개발도상국 변방의 막대한 수의 사람들이 이미 극심한 배고픔과 영양부족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난민 전 세계적으로 이미 2천 5백만

### 성찰을 위한 질문

이상에서 당신에게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는가?  
특히 당신에게 자극을 준 것이 있다면?

세계의 불안정한 현재상태는 도에 넘치는, 세계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0 퍼센트의 가난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지구자원의 86 퍼센트를 소비하는 세계인구의 20 퍼센트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지나친 소비 때문이다.

### ■ 우리 신앙의 전통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없이 복잡한 이 분야에로의 여정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도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신학이 필요하다.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추구하였던 보나벤투라 성인은 창조의 성사성에 관한 신학, 즉 창조된 세계내의 그리스도의 발자취에 천착하였다. 세상은 온통 거룩함이며, 모든 피조물들은 어디에나 당신의 자취를 남기시는 창조주의 상징이거나 계시이다. 피조물의 어떤 국면도 고의로 파괴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선사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일이다. 인간의 권리가 부정되거나 착취되는 경우에만이 아니라 바다와 강과 그리고 숲에 깃든 신성함이 더럽혀질 때도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우리를 하느님계로 인도해주는 성사로서 인정될 때, 타자와 맺는 우리들의 관계성 또한 지배와 권력으로부터 존중과 경외에로 전이되도록 자극 받게 된다.

### ■ 수도자들이 왜 생태적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관련되는가?

지구는 고통을 감수하는 거대한 역량을 갖고있긴 하지만, 위기에 빠져있는 인류의 미래생존에 대한 대처 없이는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전적으로 다룬 기념비적인 교황 서한,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1990. 1. 1.)”는 “구체적인 깨달음 안에서의 자연과 피조물에 대한 책무가 크리스찬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15 항)”이라며 신자들을 환기하였다.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주권은 우리들이 사회정의 즉 사람들에게만 귀속되는 정의가 아닌 인간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의 정의도 의미하는 생태적 정의를 역설한다. 창조는 이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함께 서로간에 내적 연고를 갖는 존재들의 공동체로서 이해된다. 생태질서는 틀림없이 신앙의 한 부분이며 대화의 교환과 공동협력 그리고 상호간의 귀속으로 촉진될 수 있는 것들을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회와 종교간 대화 그룹은 이미 기후변화 문제에 관하여 깊이 결속되어 있다. 무르익은 종교 간 대화의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이 이슈를 위해 일하고 있는 비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에게로도 나아가야 한다.

###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들

■ 우리는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다.

- 우리는 통찰력을 익혀왔다.
-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상호교환 할 수 있는 조직과 방법들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다.
- 우리의 영성과 우리에게 주어진 특은을 통하여 화해와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는 서약했다.
- 우리는 예언자적 역할을 선택하도록 불리웠다.
- 우리는 보살핌이 필요한 고통들과 함께 하는 연대와 공동선의 도덕률을 지닌 사람들이다.

남녀 수도자들로서 우리의 과업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아름다움을 관상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관상은 일치어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집이며 새로운 천년기를 시작하는 우리 지구의 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착함의 자리인 양심에로의 회귀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소비주의와 물질적 가치에 의해 규정되어진 나라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삶을 고귀하게 하는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사는 삶의 방식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 성찰을 위한 질문들

- 수도자가 생태적 이슈에 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도자가 생태적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 환경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은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 크리스찬 환경윤리

- 환경과의 연대 윤리의 중요한 요소들은
  - 창조가치에 대한 지식
  - 공동선이라는 관점에서 환경의 내재성을
  - 공동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적 구조를
  - 그리고 환경과 개발 사이의 관련성을 포함한다.
- 적절한 환경윤리는 생태적인 균형과 함께 경제개발을 위한 전략들을 통합할 것이다.

도덕률에 있어서의 기본은 타자와 그 타자에 대한 나의 책무에 대한 인식이다.

타자의 독자성과 진정한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타자를 명백히 존중하게 된다.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을 수단적 가치의 존재로 보았던 왜곡된 관점이 광범위하게 환경의 지위를 추락시켜왔다. 성 프란치스코와 병엔의 힐데가르트 그리고 다른 많은 신비가들은 피조물이 하느님에 의해 존재자체로서 사랑을 받는 독자적인 윤리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지역과 국가수준의 한계를 초월한 국제적 공동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양과 숲, 대기, 동물들, 물고기를 그리고 식물종의 보존은 한 국가나 정부의 차원을 초월하는 관심사다. 환경문제는 지구촌 수준에서의 공동선을 정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자원이 복구되기 보다 더 빨리 소비할 때 그리고 복구 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미래세대의 필요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갈시켜 버릴 때 우리는 그들의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보프는 인류를 지구의 양심이라고 말한다. 이런 성찰은 우리가 모든 피조물의 내적 연고성을 재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주를 위한 창조주의 계획안에서 인류는 독특한 위치와 역할을 갖기는 하나 한 개인이 주변과의 왕성한 관계들 없이는 오래 생존할 수 없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만물이 필요하지만 만물이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

니다.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역량 있는 조직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연합과 교토의정서처럼 국제조약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원조와 개발을 의미한다.

환경은 개별국가 차원의 관할을 넘어있다.

### ■ 바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제로 생태질서는 모든 이가 지지하는 일치된 노력들로서만 성취될 수 있다.

환경위기는 근원적으로 가치의 위기이다. 우리는 세상을 달리 보도록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일상에서의 생활의 양식을 바꿀 수 있음은 차지하고,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정책을 바꾸도록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생태적 삶에로의 방향전환(2001. 1. 17, 요한 바오로 2세)과 기후변화와 생태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것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 교육이 필요한 것은 지구를 위협하는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알려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수수께끼의 진정한 실체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수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약간의 방법이 있다.

- 수도자는 자원보존 방법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공동체적 삶에 대한 우리의 서약은 우리에게 자원의 보존과 재활용의 길을 보여주는 특권을 부과한다.
- 종합적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중 누군가는 이미 정치적 행동에 관련되어 있거나 변화된 생활양식을 만들고 있을 터이고,
- 다른 이들에게는 이 책자에 포함된 정보가 문제상황의 긴급성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다.
- 수도자는 쉽게 지역 환경시민단체와 연계를 가지고 어떤 계획들과 운동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나라에 있는 세계의 기후를 위해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웹사이트를 찾아 보라.
- 공동체에 환경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한다.
- 땅을 잃은 자들, 거주지를 잃은 자들, 난민들, 토착민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땅과 물과 숲을 되찾도록 지원한다.
-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합의한 환경보호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교토의정서)을 알고 있습니까? 55개국(현재는 46개국)에 의해 비준되었었고, 세계 온실가스의 55 퍼센트를 방출하는 국가들로부터 인준되었었지요. 즉 거의 모든 선진국가가 가입했었습니다. 현재는, 겨우 몇 개국만이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3R을 실천할 수 있다.

#### ■재활용(Recycle)

소비습관을 관찰하기-정교하게 포장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고, 설거지와 세탁용의 제대로 된 녹색 브랜드의 비누와 세탁소를 선호하기.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을 사용하기-플라스틱류, 껍질이 있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 종이와 판지, 유리제품과 깡통들.

퇴비 만들기-나뭇잎이나 덩불 그리고 여타의 정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들과 함께 지렁이를 섞어 준다면 퇴비는 흙에 자연스럽고도 매우 유익한 비료가 될 것이다.

컴퓨터와 텔레비전 세트와 같은 제품에 중고 부품이나 기계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의 가능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들을 북돋우기.

*이외의 방법을 찾아본다면?*

#### ■절감하기(Reduce)

- 물 사용을 줄이기
- 자동차에 대한 의존 줄이기
- 비 재활용 제품의 소각을 줄이기
-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을 사용하여 프레온 가스 혹은 대체 프레온 가스 방출을 줄이기
- 소형의 형광등을 사용하여 전기사용을 줄이기
- 이외의 방법을 찾아본다면?

**■자각시키기(Remind)**

- 지방행정단체들로 하여금 재활용과 쓰레기절감에 대해 자각시키고 재활용과 쓰레기에 관한 법률을 지키고 개선토록 하기.
- 제품의 포장을 단순화하도록 지역 사업체들을 단속하기
- 지역 행정책임자로 하여금 전력을 보존하고 효율적인 전력시스템을 갖추게 하기
- 국가정부로 하여금 환경보호를 지지하는 선언문과 의정서에 참여시키기
-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촉구하고 소비양식의 원칙으로서 "절감-재활용-재사용 정신"을 퍼뜨리기
- 이외의 것을 찾아본다면?

지구헌장의 회원되기  
<http://www.earthcharter.org> (다양한 언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 나라의 환경부와 정치인들을 만나서 교토의정서에 따르는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물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미국-교토의정서를 파기해 버린-에 살고 있다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국제협약에 다시 가입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지역에 있는 국제연합의 책임자들과 접촉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당신의 나라의 경제개발기구사무실에 터 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하여 어떤 계획들이 국제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의 명단은 <http://www.unfccc.int>에 있습니다.

**■성찰과 기도를 위하여**

이 단순한 책자를 읽었다면 공동체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성찰과 기도의 모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모임의 중심에 한 그릇의 물, 촛불, 약간의 흙 등을 배치하고.....

▪**전기도** : 환경을 돌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라는 요청이고 이에 인간의 행위를 비춰보는 것이며 그리고 지구를 보존하는 한편 그들의 진정한 실존을 위해 필요한 대지와 공기와 물에 의존해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 사이에 존재하는 극적인 균형을 파괴하지 않음이다. 환경문제는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정치사상의 중심이 되어왔는데 이는 엄밀한 이유에서 파괴의 증가-사회의 힘없는 계층들에게 특별히 통렬한 방법으로 충격을 가한-로 말미암은 것이다. 기후의 변화와 자연재앙의 횡수의 증가는 현대사회의 진로에 대한 질문을 불러 일으켰다. 계속 증가하는 빈부의 차이는 누구도 무관하도록 남겨두지 않을뿐더러, 가속되는 생물종의 소실과 지구자원의 남용도 역시 그러하다.  
 (프랑소와 사비에르 낭우엔 반 뚜앙 추기경. 교황청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시편 148편 1절~10절

▪아래의 질문을 묵상하면서 잠시 침묵한다.

**이 책자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 자신 안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는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지구온난화의 징표를 발견하는가?  
당신의 수도회의 문헌들(회칙, 총회문서, 기타)이 어떤 방식으로든 피조물을 경외하도록 하는가?  
당신 나라의 주교회의는 지구온난화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 행동하기

지구온난화에 관련한 당신의 관심에 상응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겠는가?

#### ■마침기도

창조하신 모든 것로부터의 찬미가 당신께 있나이다  
무엇보다 낮이 오게 하는 형제 태양으로부터 찬미 받으소서  
그는 얼마나 아름다우며 당신 광채 중에서도 과연 찬란하나이다!  
가장 높으신 당신으로 그는 닳아 있나이다  
자매 달과 별들로부터 나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맑고 소중하고 귀여이 그들을 하늘에 창조하셨나이다  
자매 물을 통하여 나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그는 유용하며 겸손하고 소중하고 귀엽나이다  
형제 불로부터 찬미 받으소서 나의 주님  
그로부터 당신은 밤을 밝히시나이다.  
자매 땅인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찬미 받으소서  
그로 하여 가지가지의 색깔의 꽃들과 약초와 함께 여러 과일을 낳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나이다.  
찬미하오며 축복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나의 주님  
겸손을 다하여 당신을 섬기나이다  
태양의 찬가 축약(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보다 깊은 이해와 정보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

#### ■ 웹사이트들과 기타 자료들(다양한 언어 사용 가능함)

1. Greenpeace: <http://www.greenpeace.org>
2. Climate Voice: <http://www.climatevoice.org>
3. "Earth Charter: <http://www.earthcharter.org>
4. Friends of the Earth: <http://www.foei.org>
5. Planet Ark: <http://planetark.org/index.cfm>
6.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iisd.ca>
7.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http://www.ucsusa.org/warming/index.html>
8.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ttp://www.unfccc.int>
9. World wildlife fund: (Simple explanation on climate change in four languages)  
<http://www.panda.org/resources/publications/climate/crisis/crisis.htm>
10. UN Environment Program: <http://www.unep.org>
11. UN Development Program: <http://www.undp.org>
12.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http://www.fao.org>
13. Alliance for Religions and Conservation: <http://www.religionandconservation.org>
14. Climate Action Network <http://www.climatenetwork.org>
15. World Council of Churches Climate Change Programme: Dr. David G. Hallman,  
WCC Climate Change Programme Coordinator, c/o The United Church of Canada, 3250 Bloor  
Street West, Toronto, ON, Canada M8X 2Y4 Tel: +1-416-231-5931  
Fax: +1-416-231-3103 E-mail: [dhallman@sympatico.ca](mailto:dhallman@sympatico.ca)

#### ■ 언어별 웹사이트

##### ■독일어

<http://www.hamburger-bildungsserver.de/welcome.phtml?unten=/klima/infothek.htm>

<http://www.klimaschutz.de/kbklima>  
<http://www.klimabuendnis.at/daskb/index.html>  
<http://www.treibhauseffikt.com>

■ 프랑스어

<http://www.agora21.org/mies/chan-climl.html>  
<http://fr.fc.yahoo.com/t/rechauffement.html>

■ 스페인어

<http://www.pangea.org/personasenaccion>  
<http://www.ine.gob.mx>  
<http://ww.lareserva.com>

■ 성서와 교회문헌

- 창세기 1:1-2,3; 9:9-11
- 출애굽기 3:7-10; 15:22-27; 23:10-12
- 레위기 25:1-24
- 지혜서 11, 24-26
- 이사야 11:1-9; 40:12-31
- 다니엘 3:57ff
- 시편 8; 19; 24; 104:16-23; 136; 148:1-4 & 7-10
- 잠언 8: 22-31
- 마르코 5:35-41
- 마르코 12, 29-31
- 마태오 5,1-14
- 마태오 12,22-34
- 마태오 6:26-30
- 루카 16:19-31
- 요한 9, 12:23-26
- 로마 8:18-25
- 골로사이 1:15-20
- 묵시록 21:1-15; 6:16-21
- 로마 8, 22-24
- 고린토 1 3, 9

■ 환경에 관한 교회문헌들

(주교회의 시노드 문헌과 지역문헌은 각자 참조)

-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평화, 모든 피조물과의 평화.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99-301; 307; 339-341; 344 2415-2418
- 민족들의 발전 23, 24
- 신앙과 이성 104
- 백주년 37-38
- 노동하는 인간 4
- 어머니와 교사 196, 199
- 팔십 주년 21
- 인간의 구원자 8, 15
- 사회적 관심 26, 29, 34

■ 생태와 환경의 날들

- 3/22 물의 날
- 4/22 지구의 날
- 5/22 생물종다양성의 날

- 6/05 세계 환경의 날
- 6/17 반 사막화의 날
- 9/16 오존층 보호의 날

만일 아이디어나 제안들 혹은 이 책자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당신이 속한 수도회의  
정의평화환경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

(메 일 : ....기타